

# 노인의 인지연령과 주거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과의 관계\*

- 침실과 거실공간을 중심으로 -

##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ior Style of Residential Space and the Elderly' Cognitive Age

- Focused on Bedroom and Living Room -

**Author** 오찬욱 Oh, Chan-Ohk / 정희원, 인제대학교 디자인학부 실내디자인전공 교수

**Abstract** Many housing alternatives and design guidelines for the elderly have been suggested along with the rapid increase of old persons. However, most of them focused on the spatial composition and fixtures. They do not address on interior style which affects on interior mood. The interior style is especially important to the elderly who spend most of their time in indoor space, such as housing unit or nursing home. On the base of these backgroun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interior style of bedroom and living room where the elderly lives are and whether the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cognitive ages, or not. The subject were 202 old persons who lived in Busan. Their ages were more than 65 years. They were interviewed by using 3D images of bedroom and living room. Each one consisted of three interior styles; Korean traditional style, Western classical style, and modern style. The results were as followings; The interior style of bedroom and living room which the old persons lived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 elderly's cognitive ages. The younger the old persons' cognitive ages were, they lived in bedroom or living room of modern style. Also, the older their cognitive ages were, they lived in bedroom or living room of Korean traditional style. These results show that the cognitive age of the old persons affect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design which they live. Also, it implies that the elderly are not one homogeneous group, but a heterogeneous one.

**Keywords** 인테리어 스타일, 주거공간 스타일, 인지연령, 침실 스타일, 거실 스타일  
Interior Style, Residential Style, Cognitive Age, Interior Style of Bed Room, Interior Style of Living Room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고령화현상에 따른 노인을 위한 주택의 계획지침과 대안 마련이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심리적, 신체적 약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므로 이를 배려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줌으로써 노인의 자립생활을 가능한 오래도록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노인주택 계획지침과 주택대안 등이 제안되었으며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 노인주택대안들이 제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인주택 지침들은 주택 내부의 공간 구성과 가구설비 등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실내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실내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주택의 침실과 거실은 노인들이 사용하는 주된 공간으로서 이들 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노인의 정서와 건강 등에 영향을 주어 노인의 생활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서 작용한다. 노인에게 침실공간은 에너지 재생산을 위한 수면공간일 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게 해주는 공간으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간이다. 거실공간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거나 친구 등을 만나는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노인주택 외에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급은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면서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자신의 주택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이 전문적인 간호 등을 받기 위하여 장기간 거주하는 곳으로 노인들에게는 주택과 같은 곳이다. 따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4S1A5B8044097)

라서 노인요양시설의 입원실은 비록 여러 명이 사용하는 다인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해도 주거공간의 침실과 같은 분위기의 공간으로 디자인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입원실은 병원의 입원실과 동일한 분위기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공동거실은 입원 노인들이 입원실에서 벗어나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지만, 주택의 거실보다는 공공시설의 라운지 같은 분위기가 대부분이다.

한편 많은 소비자 연구에서 노인 소비자는 자신의 실제 연령보다 인지연령, 즉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관심연령에 따라 소비행동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실내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도 인지연령에 따라 다른지를 검증해 보는 것은 의미 있으며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각 실 중 인테리어 스타일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이 무엇이며 이 인테리어 스타일이 노인의 인지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sup>1)</sup>. 이는 다양한 유형의 노인주택 뿐 아니라 노인요양시설의 입원실과 공동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담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조사대상이 노인임을 감안하여 종류가 많을 경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한국전통 스타일, 서양고전 스타일, 현대 스타일의 3가지로 구분하여 보았으며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를 3D 이미지로 표현하여 보여주며 조사하였다. 이때 조사대상 공간이 주거공간임을 고려하여 인테리어 스타일을 강조하기 보다는 보통의 침실 및 거실공간처럼 표현하고자 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인지연령

노인을 이해할 때 노인의 실제 연령은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변화를 통해 형성되는 노년기의 삶을 제대로 이

해하는데 많은 것을 설명하지 못해 주며<sup>2)</sup> 따라서 인지연령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주장이 있다. 인지연령은 개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연령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제연령보다 높거나 낮게 생각하고 있다.

인지연령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결과들에 의하면 성인 후기 이후에는 실제 연령보다 인지연령을 더 낮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자신을 젊게 지각하는 정도가 더 커졌다<sup>3)</sup>.

인지연령은 마케팅이나 소비자 행동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노년층은 인지된 연령에 따라 구매행동에 차이가 있으며 인지된 연령이 노년층의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sup>4)</sup>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 연구, 즉 노인의 구매행동이나 선호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들 중에는 실제 연령보다 인지연령을 사용하기도 한다. 여성 노년층 소비자들은 의복을 구매할 때 실제 연령보다 인지연령으로 의복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연령만으로 시장을 세분화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sup>5)</sup> 관광연구에서도 인지연령의 유용성이 강조되었다고 하면서 인지연령에 따른 고령관광객의 관광행동요인, 즉 관광횟수, 체류일수, 관광정보원, 여행 동반자, 관광지 활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sup>6)</sup>도 진행되었다. 이는 인지연령을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노인을 위한 공간을 디자인할 때 내부공간의 공간 구성과 가구설비, 인테리어 스타일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작용하리라 본다.

이러한 인지연령의 측정도구로는 Barak & Shiffman이 개발한 인지연령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 척도는 인지연령을 감성, 외모, 행동, 관심의 4가지 연령으로 구분하여 본다. 감성연령은 ‘스스로가 몇 세라고 느끼는가’ 하는 것이고 외모연령은 ‘스스로가 몇 세로 보여지는가’이며 행동연령은 ‘스스로가 몇 세처럼 행동하는가’, 관심연령은 ‘자신의 관심사는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30대에서 80대까지 10년 단위로 문항을 제시하여 답하게 하여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연령을 측정하는데 이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1) 본 연구를 위한 조사를 할 때 선호하는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도 조사하였으며 현 거주 주택의 인테리어 스타일과 선호하는 스타일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침실과 거실의 경우 모두 유의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의 인테리어 스타일과 동일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성향을 보였다.(침실: $r^2=19.717$ ,  $p<.001$ , 거실: $r^2=30.374$ ,  $p<.001$ ) 따라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과 인지연령과의 관계를 보는 것은 의미있다고 보았다.

2) 이금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인지연령과 차이연령 분석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정체성 연구, 한국노년학, 28권 2호, 2008, p.252  
3) 박광희, 인지연령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권 1호, 2012, p.49  
4) 홍경희·이윤정, 60대-70대 여성 소비자의 인지된 연령에 따른 의복선택기준 및 패션 정보원 활용, 한국의류학회지, 34권 2호, 2010, p.201  
5) Ibid., p.209  
6) 김현정·최기탁, 인지연령에 따른 고령관광객의 관광지 선호속성과 관광행동, 관광경영연구, 14권 1호, 2010, pp.101-122

## 2.2. 인테리어 스타일의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주거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유형화하여 사용한 연구들은 작품분석, 전문가의 의견, 실제 주택이나 모델하우스 분석을 통하여 인테리어 스타일을 적게는 6가지에서 많게는 14가지로 유형 분류하였다.<표 1>

일반적인 인테리어 디자인 스타일을 로맨틱, 클래식, 모던, 미니멀, 내추럴, 에스닉, 오리엔탈, 엘리건트, 캐주얼, 하이테크, 쟈, 퓨전, 컨트리 스타일의 14가지로 구분하고 각 스타일의 코디네이션 특성을 분석한 후, 우리나라 타운하우스 8곳의 공간별 코디네이션 특성에 따른 스타일을 분석한 연구7)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타운하우스의 거실, 주방, 침실, 가족실을 대상으로 코디네이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모던스타일, 클래식 스타일, 내추럴 미니멀 스타일, 내추럴 모던스타일, 빈티지 내추럴 스타일의 5가지 인테리어 스타일이 나타났다.

10년간 발표된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작품을 분석하여 실내디자인 스타일을 로맨틱, 에스닉, 클래식, 하이테크, 엘리건트, 컨트리, 모던, 미니멀, 내추럴, 캐주얼 스타일의 10가지로 유형화한 연구8)가 2004년에 진행되었다.

<표 1> 실내디자인 디자인 스타일의 유형분류 관련 선행연구

저자	실내디자인 스타일	분류수
백진영·최상현 (2009)	로맨틱, 클래식, 모던, 미니멀, 내추럴, 에스닉, 오리엔탈, 엘리건트, 캐주얼, 하이테크, 쟈, 퓨전, 컨트리 스타일	14
김경숙·이연숙 (2004)	로맨틱, 에스닉, 클래식, 하이테크, 엘리건트, 컨트리, 모던, 미니멀, 내추럴, 캐주얼 스타일	10
김소희·한영호 (2008)	모던, 클래식, 로맨틱, 미니멀, 오리엔탈, 믹스앤매치, 내추럴 스타일	7
조성희·홍혜은 (2010)	클래식, 모던, 미니멀, 오리엔탈, 내추럴, 덴디, 어번	7
서민우·정유나 (2012)	로맨틱, 클래식, 컨트리, 모던, 내추럴, 캐주얼, 전통적인 스타일	7
이현주·박수빈 (2012)	클래식, 모던, 로맨틱, 내추럴, 미니멀, 캐주얼 스타일	6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스타일을 7가지로 분류하여 사용한 연구가 3편이 있었으나 7가지 스타일의 종류는 연구마다 달랐다. 선행자료에 대한 검토와 트렌드 조사를 하고 실무적용사례를 통한 스타일 분포도를 수집한 후 실내디자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2차에 걸친 조사를 하여 실내디자인 스타일을 7가지로 분류하고 이들 7가지 실내디자인 스타일별 주거 코디네이트 연출방법을 분석한 연구9)가 있다. 이 연구에서 7가지 실내디자인 스타일은 모던, 클래식, 로맨틱, 미니멀, 오리엔탈, 믹스앤매치, 내추럴 스타일이다. 다른 연구는 주요 건설사 모델하우스

스의 실내디자인 스타일을 그 구성요소인 이미지, 형태, 재료, 색채에 따라 분석한 연구10)인데 이 연구는 모델하우스의 실내디자인 스타일을 문헌연구와 사례분석을 통하여 추출한 클래식, 모던, 미니멀, 오리엔탈, 내추럴, 덴디, 어번 스타일의 7가지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또 하나의 연구11)는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앞에서 언급한 김경숙의 10가지 스타일 중 본 연구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에트닉, 하이테크, 미니멀, 엘레강트의 4가지 스타일은 제외시키고 전통스타일을 추가하여 로맨틱, 클래식, 컨트리, 모던, 내추럴, 캐주얼, 전통적인 스타일의 7가지 스타일을 노인에게 친숙한 스타일로 선정하고 7개 스타일별로 침실과 거실, 색채, 가구, 조명, 재료, 패턴, 장식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였다.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 스타일을 6가지로 분류하여 사용한 연구12)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0년-2012년 사이의 주거공간 실내디자인 관련문헌을 분석하여 총 20가지의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을 추출한 다음, 이 중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6가지 실내디자인 스타일인 클래식, 모던, 로맨틱, 내추럴, 미니멀, 캐주얼 스타일을 선정하였다. 그런 다음 문헌과 사진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6가지 각 스타일별 색채, 가구, 재료의 특성을 분석하여 디자인어와 거주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조사하고자하는 것이므로 실내디자인 스타일의 종류가 많을 경우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노인이 구분하기 쉽다고 판단되는 3가지의 스타일, 즉 위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스타일인 클래식, 모던, 내추럴 스타일 중에서 내추럴 대신 우리나라 전통 스타일을 넣어서 한국전통 스타일, 서양고전 스타일, 현대 스타일로 구분하여 보았다.

## 3. 연구방법

### 3.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202명이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 16개 구 중 노인인구가 많은 3개 구13)를 조사대상 구로 선정하였다. 그 다음 3

7) 백진영·최상현, 국내 타운하우스 실내에 표현된 인테리어 디자인 스타일 및 Coordination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1권 1호, 2009, pp.64-68  
 8) 김경숙·이연숙, 현대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권 4호, 2004, pp.12-20  
 9) 김소희·한영호,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따른 주거 코디네이트 연출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권 3호, 2008, p.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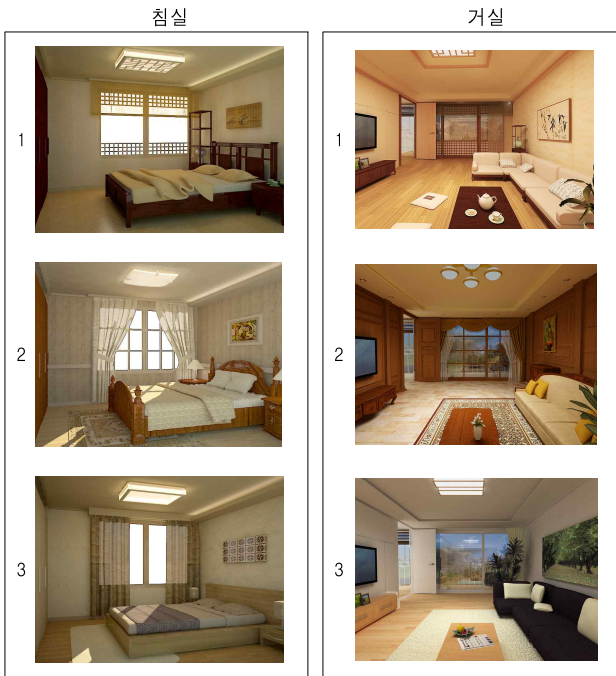
10) 조성희·홍혜은, 주거 실내디자인에서 실내디자인 스타일의 인식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2권 1호, 2010, pp.78-81  
 11) 서민우·정유나, 실내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노인들의 선호이미지 연구, 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권 6호, 2012, pp.109-120  
 12) 이현주·박수빈, 주거공간 실내디자인스타일 구성요소의 디자인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4권 3호, 2012, pp.69-72  
 13) 2012 부산노인인구통계자료에 의하면 2012년 12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비율은 전체 평균 12.50%였으며 동구가 18.2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구 17.80%, 서구 17.53%의 순이었다.

개 구에 위치한 노인복지회관 중 조사가 가능한 복지회관을 임의로 선정하여 복지회관을 이용 중이며 본 조사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3.2. 조사내용

노인이 사용하고 있는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파악하기 전에 두 공간의 사용방식과 바닥마감재 및 가구의 종류를 조사하고 그 다음 인테리어 스타일을 조사하였다. 또한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으로 성별, 연령,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수준, 학력, 현 주택에서의 거주기간, 주택유형, 4가지 인지연령인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관심연령 등을 조사하였다.

인테리어 스타일은 3D 이미지로 표현된 3개의 스타일, 즉 한국전통 스타일과 서양고전 스타일 및 현대 스타일의 침실과 거실을 각각 1장에 배치하여 보여주면서 현재의 침실 또는 거실과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도록 하였다.<그림 1>



1: 한국전통 스타일 2: 서양고전 스타일 3: 현대 스타일

<그림 1> 3D 이미지 :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3D 이미지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 평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평면을 선정하여 부부침실 및 거실의 스타일이 가장 잘 보이는 시점에서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침실의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와, 창문, 커튼, 러그, 액자, 가구 등의 위치는 가능한 동일하게 하되 각 스타일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하였다. 거실의 경우도 바닥, 벽, 천정의 마감재와, 창문, 커튼, 러그나 방석, 액자, 소파와 테이블 등의 가구의 위치는 가능한 동일하게 하면서 각 스타일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인테리어 스타일은 실내디자인 전공자 3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표현하였다. 3D 이미지는 침실과 거실 2장이었으며 각각은 3개의 스타일로 표현된 3D 이미지의 크기를 각각 18\*13.5mm로 하여 A3 용지크기(297\*420mm)의 종이에 세로로 나란히 배치하였으며 이를 칼라로 프린트하여 조사에 사용하였다.

### 3.3. 조사방법

본 연구는 조사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훈련을 받은 연구원 3인이 설문지를 이용한 일대일 면담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2014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진행하였다.

### 3.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22를 사용하여 통계분석 처리하였으며 빈도, 퍼센트, 평균, 카이검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조사결과

### 4.1.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

#### (1) 일반특성

조사대상 노인의 성별은 남자가 35.8%, 여자가 64.2%로 여자노인이 많았다.<표 2> 연령은 60대 후반이 35.6%로 가장 많았으며 70대 초반이 27.7%, 70대 후반이 20.3%로 60대가 35.6%, 70대가 48.0%, 80대 이상이 16.4%였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하가 38.4%, 고졸이 27.4%, 중졸이 22.6%였으며 대졸이상도 11.6%나 되었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하라고 한 노인이 49.7%, 중이 38.4%로 대부분의 노인들이 중과 하라고 하였으며 상이라고 한 노인은 11.9%에 불과하였다.

<표 2> 조사대상 노인의 특성

특성	구분	f	%	특성	구분	f	%
성별	남자	72	35.8	건강상태	나쁨	53	27.3
	여자	129	64.2		보통	79	40.7
	계	201	100.0		건강	62	32.0
연령	65세-69세	72	35.6	주택거주기간	계	194	100.0
	70세-74세	56	27.7		1년-5년	65	33.5
	75세-79세	41	20.3		6년-10년	32	16.5
	80세-84세	22	10.9		10년-15년	23	11.9
	85세 이상	11	5.4		15년-20년	16	8.2
	계	202	100.0		20년 이상	58	29.9
학력	초졸 이하	73	38.4	주택유형	계	194	100.0
	중졸	43	22.6		아파트	70	34.7
	고졸	52	27.4		단독주택	69	34.2
	대졸 이상	22	11.6		연립주택빌라	28	13.9
	계	190	100.0		원룸	8	4.0
사회경제적수준	하	92	49.7	다세대다가구주택	7	3.5	
	중	71	38.4	오피스텔	6	3.0	
	상	22	11.9	기타(상가주택, 별장,여인숙 등)	14	6.9	
	계	185	100.0	계	202	100.0	

조사대상 노인들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보통이라고 한 경우가 40.7%였으며, 건강하다고 한 경우가 32.0%로 나쁘다고 한 27.3%보다 많았다.

현 주택에의 거주기간은 1-5년 미만이 33.5%, 6-10년 미만이 16.5%로 50%가 10년 미만이었으며 20년 이상도 29.9%로 많았다.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34.7%, 단독주택이 34.2%로 비슷하였으며 이외에 연립주택/빌라, 원룸, 다세대/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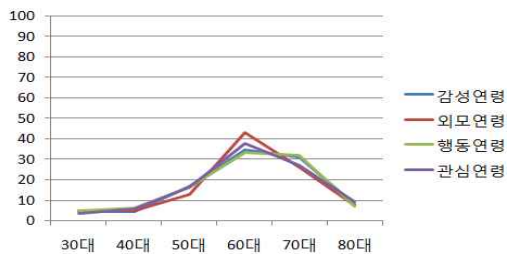
(2) 인지연령

조사대상 노인들이 자신의 연령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관심연령을 조사하였다.<표 3>, <그림 2>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연령을 실제보다 젊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4가지 인지연령의 분포는 비슷한 성향을 보였다. 즉 조사대상 노인들의 실제연령은 65세 이상으로 60대 후반과 70대 노인들이 대부분이었으나 4가지의 인지연령을 조사한 결과 60대(33.3%-43.1%)와 70대(26.2%-31.8%)가 많았으나 50대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12.8%-16.8%)도 비교적 많았으며 30대나 40대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도 10%정도씩은 되었다. 또한 80대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7.2%-9.2%로 실제 80대 이상이 16.4%인 것과 비교할 때 적었다.

<표 3> 조사대상 노인의 인지연령

인지연령	구분	f	%	인지연령	구분	f	%
감성연령	30대	9	4.6	행동연령	30대	10	5.1
	40대	9	4.6		40대	12	6.2
	50대	33	16.8		50대	32	16.4
	60대	68	34.7		60대	65	33.3
	70대	61	31.1		70대	62	31.8
	80대	16	8.2		80대	14	7.2
	계	196	100.0		계	195	100.0
외모연령	30대	10	5.1	관심연령	30대	7	3.6
	40대	10	5.1		40대	11	5.6
	50대	25	12.8		50대	32	16.4
	60대	84	43.1		60대	74	37.9
	70대	51	26.2		70대	53	27.2
	80대	15	7.7		80대	18	9.2
	계	195	100.0		계	195	100.0



<그림 2> 조사대상 노인의 인지연령 분포

(3) 노인특성과 인지연령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노인의 특성에 따라 인지연령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노인의

특성 중 학력과 사회경제적 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노인의 인지연령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의 성별과 거주기간 및 주택유형은 노인의 인지연령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인지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인지연령이 낮아지는 성향을 보였다.

<표 4> 노인의 특성별 인지연령의 차이검증( $\chi^2$ 검증)결과

	감성연령	외모연령	행동연령	관심연령
성별	1.330	3.273	6.917	4.408
학력	23.109 <sup>*</sup>	36.187 <sup>***</sup>	42.692 <sup>***</sup>	42.174 <sup>***</sup>
사회경제수준	13.069	20.240 <sup>**</sup>	17.773 <sup>*</sup>	20.411 <sup>**</sup>
건강상태	17.525 <sup>*</sup>	18.182 <sup>*</sup>	22.875 <sup>**</sup>	23.749 <sup>**</sup>
거주기간	11.929	14.431	21.020	19.641
주택유형	3.969	11.596	9.483	11.863

<sup>\*</sup> p<.05    <sup>\*\*</sup> p<.01    <sup>\*\*\*</sup> p<.001

4.2. 노인거주 침실과 거실의 실내디자인 특성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침실과 거실의 실내디자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 실의 사용방식과 바닥마감 및 가구의 종류 등을 조사하였다.

(1) 침실의 실내디자인 특성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침실의 사용방식과 바닥마감 및 가구를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침실의 사용방식은 좌식과 입식인 경우가 50%씩 되어 반씩이었다. 노인이 되어 노화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바닥에 앉았다 일어섰다하는 동작이 힘들어지므로 바닥보다는 의자 높이의 침대를 사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침실은 바닥 난방을 하여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그대로 좌식으로 사용하거나 침대를 배치하여 입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침실의 바닥마감은 합성재가 54.7%로 가장 많았으며 전통 장판이 31.3%, 나무가 12.9%의 순이었다. 합성재는 시각적으로 인공적인 것으로 보이는 성향이 있지만 저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므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전통장판이나 나무는 노인에게 친근하고 자연적으로 보이지만 가격이 비싼 편이므로 적게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침실의 마감재는 자연재료 같이 보이는 합성재료나 자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침실 가구로는 옷장(63.9%)과 이불장(49.5%), 침대(40.1%), 화장대(34.7%)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불박이 옷장과 이불장 및 화장대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어느 정도 있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침실에는 옷장과 이불장 및 화장대를 기본적인 가구로 볼 수 있으며 사용방식에 따라 침대의 포함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5> 침실공간의 실내디자인 특성

특성	구분	f	%
사용방식	좌식-요사용 등	101	50.0
	입식-침대사용 등	101	50.0
	계	202	100.0
바닥마감	합성재(시트지 등)	110	55.0
	전통적인 장판	63	31.5
	나무	26	13.0
	인조대리석, 타일 등 석재	1	.5
	계	200	100.0
가구*	옷장	129	63.9
	불박이옷장	27	13.4
	이불장	100	49.5
	불박이이불장	20	9.9
	침대	81	40.1
	화장대	70	34.7
	불박이화장대	4	2.0
	테이블	25	12.4
	안락의자	21	10.4
	서랍장	31	15.3
	행거(4), 문감(3), 책상(2), 책장(2) 등	16	7.9

\* 다중응답한 경우임

(2) 거실의 실내디자인 특성

거실의 경우도 공간 사용방식과 바닥마감 및 가구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 <표 6>과 같이 사용방식과 바닥마감은 침실의 경우와 비슷하였으나 그 정도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조사대상 노인들의 거실 사용방식은 침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좌식이 50.8%, 입식이 49.2%로 비슷하였으며 거실의 바닥마감은 합성재로 된 시트지를 부착한 경우가 57.3%로 가장 많고 전통적인 장판이 24.1%, 나무가 17.6%의 순이었다. 거실 가구로는 소파(47.5%), 탁자(38.6%), 장식장(30.2%)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좌식으로 사용할 경우 소파나 테이블 같은 가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임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표 6> 거실공간의 실내디자인 특성

특성	구분	f	%
거실사용방식	좌식-방식	100	50.8
	입식-소파 사용	97	49.2
	계	197	100.0
바닥마감	전통적인 장판	48	24.1
	나무	35	17.6
	인조대리석이나 타일	1	.5
	합성재(시트지 부착)	114	57.3
	기타	1	.5
	계	199	100.0
거실가구*	소파	96	47.5
	탁자	78	38.6
	장식장	61	30.2
	1인용소파	24	11.9
	서랍장	19	9.4
	4인용/6인용 소파	3	1.5
	방석(1), 식탁(1), 안마의자(1), 화장대(1)	4	2.0

\* 다중응답한 경우임

4.3. 노인거주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알아보았다.

(1)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조사대상 노인들의 41.8%가 한국전통 스타일의 침실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현대 스타일의 침실이 37.5%, 서양고전 스타일의 침실이 20.7%였다<표 7>. 이는 현재의 노인들, 특히 연령이 많은 노인들은 어려서부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공간특성 속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 특성에 익숙해졌고 따라서 그 특성에 친숙하고 편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

<표 7>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f	%
한국전통 스타일	77	41.8
서양고전 스타일	38	20.7
현대 스타일	69	37.5
계	184	100.0

1) 노인의 실제 연령별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이러한 노인거주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이 노인의 인지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노인의 실제연령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검증을 하여 알아본 결과 <표 8>과 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실제연령에 상관없이 노인이 거주하는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전체 분포와 동일한 분포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의 연령이 60대인 노인은 현재 현대 스타일의 침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70대와 80대 노인은 한국전통 스타일의 침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8> 노인의 실제연령별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실제 연령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계 f(%)	x <sup>2</sup>
	한국전통 f(%)	서양고전 f(%)	현대 f(%)		
60대	26(36.1)	13(18.1)	33(45.8)	72(100.0)	8.200
70대	34(40.5)	22(26.2)	28(33.3)	84(100.0)	
80대	17(60.7)	3(10.7)	8(28.6)	28(100.0)	
계	77(41.8)	38(20.7)	69(37.5)	184(100.0)	

2) 노인의 인지연령별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표 9>, <그림 3>과 같이 4가지 인지연령 모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가지 인지연령 각각에 따라 노인거주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전반적으로는 유사한 성향을 보였으나 일부 인지연령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즉 전반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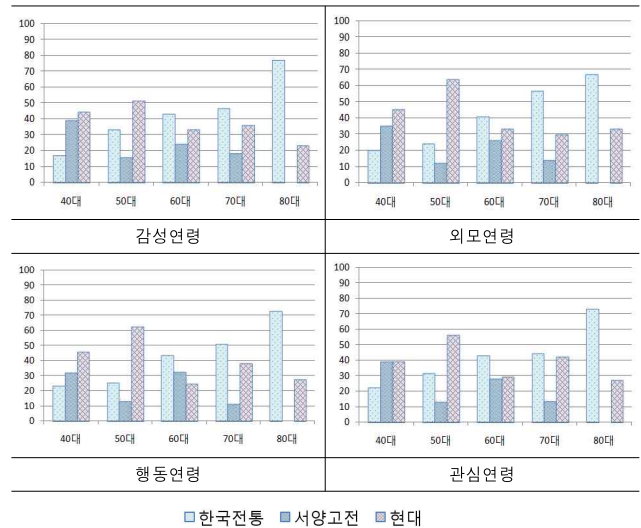
으로는 인지연령이 40대인 노인은 서양고전 스타일의 침실에 거주하는 경우가, 50대인 노인은 현대 스타일의 침실에 거주하는 경우가, 80대의 노인은 한국전통 스타일의 침실에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 분포보다 많은 성향을 보였다. 그러나 4가지 인지연령 중 외모연령과 행동연령이 70대인 경우도 인지연령이 80대인 노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전통 스타일의 침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행동연령이 60대인 노인은 인지연령이 40대인 노인과 마찬가지로 서양고전 스타일의 침실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자신의 실제 연령보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인지연령에 따라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이 달라진다는 것은 침실 실내디자인을 할 때 단순히 연령대를 고려하기보다는 거주자의 인지연령, 또는 생각이나 행태 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이다.

<표 9> 노인의 인지연령별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인지연령	구분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계 f(%)
		한국전통 f(%)	서양고전 f(%)	현대 f(%)	
감성연령	40대	3(16.7)	7(38.9)	8(44.4)	18(100.0)
	50대	11(33.3)	5(15.2)	17(51.5)	33(100.0)
	60대	27(42.9)	15(23.8)	21(33.3)	63(100.0)
	70대	26(46.4)	10(17.9)	20(35.7)	56(100.0)
	80대	10(76.9)	0(0.0)	3(23.1)	13(100.0)
	계	77(42.1)	37(20.2)	69(37.7)	183(100.0)
$\chi^2$ 17.084*					
외모연령	40대	4(20.0)	7(35.0)	9(45.0)	20(100.0)
	50대	6(24.0)	3(12.0)	16(64.0)	25(100.0)
	60대	33(40.7)	21(25.9)	27(33.3)	81(100.0)
	70대	25(56.8)	6(13.6)	13(29.5)	44(100.0)
	80대	8(66.7)	0(0.0)	4(33.3)	12(100.0)
	계	76(41.8)	37(20.3)	69(37.9)	182(100.0)
$\chi^2$ 22.055**					
행동연령	40대	5(22.7)	7(31.8)	10(45.5)	22(100.0)
	50대	8(25.0)	4(12.5)	20(62.5)	32(100.0)
	60대	27(43.5)	20(32.3)	15(24.2)	62(100.0)
	70대	28(50.9)	6(10.9)	21(38.2)	55(100.0)
	80대	8(72.7)	0(0.0)	3(27.3)	11(100.0)
	계	76(41.8)	37(20.3)	69(37.9)	182(100.0)
$\chi^2$ 27.947***					
관심연령	40대	4(22.2)	7(38.9)	7(38.9)	18(100.0)
	50대	10(31.3)	4(12.5)	18(56.3)	32(100.0)
	60대	31(43.1)	20(27.8)	21(29.2)	72(100.0)
	70대	20(44.4)	6(13.3)	19(42.2)	45(100.0)
	80대	11(73.3)	0(0.0)	4(26.7)	15(100.0)
	계	76(41.8)	37(20.3)	69(37.9)	182(100.0)
$\chi^2$ 21.308**					

\* p<.05 \*\* p<.01 \*\*\* p<.001



<그림 3> 노인의 인지연령별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2)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는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표 10>과 같이 한국전통 스타일이 43.8%, 현대 스타일이 41.5%로 많았으며 서양고전 스타일은 14.8%로 적은 편이었다.

<표 10>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f	%
한국전통 스타일	77	43.8
서양고전 스타일	26	14.8
현대 스타일	73	41.5
계	176	100.0

1) 노인의 실제 연령별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노인의 실제연령에 따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카이검증을 한 결과 <표 11>과 같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의 실제 연령에 상관없이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한국전통 스타일과 현대 스타일이 비슷하게 많아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서양고전 스타일은 적은 편이었다. 그러나 60대는 현대 스타일의 거실에서, 80대는 한국전통 스타일의 거실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전체 성향보다 많았으며 이는 침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이 많을수록 우리나라 전통스타일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성향을 약하지만 보여주는 것이다.

<표 11> 노인의 실제 연령별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연령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계 f(%)	$\chi^2$
	한국전통 f(%)	서양고전 f(%)	현대 f(%)		
60대	24(33.3)	11(15.3)	37(51.4)	72(100.0)	7.505
70대	37(47.4)	12(15.4)	29(37.2)	78(100.0)	
80대	16(61.5)	3(11.5)	7(26.9)	26(100.0)	
계	77(43.8)	26(14.8)	73(41.5)	176(100.0)	

## 2) 노인의 인지연령별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조사대상 노인의 인지연령 각각에 따라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검증을 하여 알아본 결과 <표 12>와 같이 외모연령과 관심연령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지만 감성연령과 행동연령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모연령이 40대와 50대인 노인은 현대 스타일의 거실에서, 60대는 서양고전 스타일의 거실에서, 70대와 80대는 한국전통 스타일의 거실에서 거주하는 성향이 전체 성향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즉 외모연령이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 노인은 현대 스타일의 거실에서 거주하고 외모연령이 높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한국전통 스타일의 거실에서 거주하는 성향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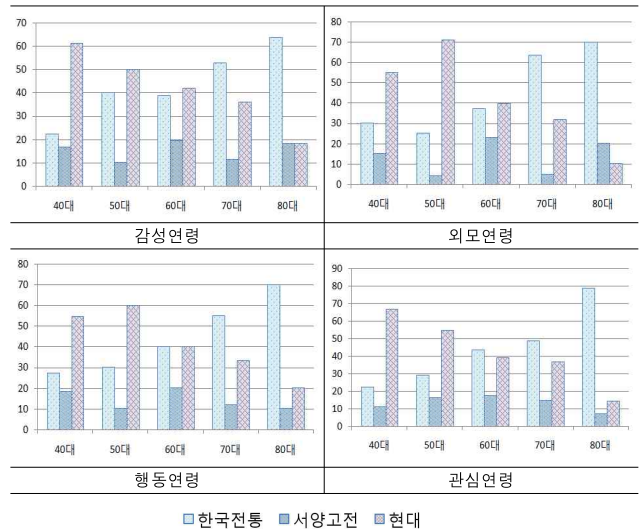
관심연령의 경우도 외모연령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 관심연령이 40대와 50대인 노인은 현대 스타일의 거실에서 거주하고 80대인 노인은 한국전통 스타일의 거실에서 거주하는 성향이 전체 성향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볼 때 자신이 생각하는 연령, 특히 보이는 연령과 관심사로 보는 연령이 낮을수록 현대 스타일의 공간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전통 스타일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성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2> 노인의 인지연령별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인지연령	구분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계 f(%)
		한국 전통 f(%)	서양 고전 f(%)	현대 f(%)	
감성연령	40대	4(22.2)	3(16.7)	11(61.1)	18(100.0)
	50대	12(40.0)	3(10.0)	15(50.0)	30(100.0)
	60대	24(38.7)	12(19.4)	26(41.9)	62(100.0)
	70대	28(52.8)	6(11.3)	19(35.8)	53(100.0)
	80대	7(63.6)	2(18.2)	2(18.2)	11(100.0)
	계	75(43.1)	26(14.9)	73(42.0)	174(100.0)
$\chi^2$		10.271			
외모연령	40대	6(30.0)	3(15.0)	11(55.0)	20(100.0)
	50대	6(25.0)	1(4.2)	17(70.8)	24(100.0)
	60대	29(37.2)	18(23.1)	31(39.7)	78(100.0)
	70대	26(63.4)	2(4.9)	13(31.7)	41(100.0)
	80대	7(70.0)	2(20.0)	1(10.0)	10(100.0)
	계	74(42.8)	26(15.0)	73(42.2)	173(100.0)
$\chi^2$		26.222***			
행동연령	40대	6(27.3)	4(18.2)	12(54.5)	22(100.0)
	50대	9(30.0)	3(10.0)	18(60.0)	30(100.0)
	60대	24(40.0)	12(20.0)	24(40.0)	60(100.0)
	70대	28(54.9)	6(11.8)	17(33.3)	51(100.0)
	80대	7(70.0)	1(10.0)	2(20.0)	10(100.0)
	계	74(42.8)	26(15.0)	73(42.2)	173(100.0)
$\chi^2$		13.376			
관심연령	40대	4(22.2)	2(11.1)	12(66.7)	18(100.0)
	50대	9(29.0)	5(16.1)	17(54.8)	31(100.0)
	60대	30(43.5)	12(17.4)	27(39.1)	69(100.0)
	70대	20(48.8)	6(14.6)	15(36.6)	41(100.0)
	80대	11(78.6)	1(7.1)	2(14.3)	14(100.0)
	계	74(42.8)	26(15.0)	73(42.2)	173(100.0)
$\chi^2$		15.515*			

\* p<.05 \*\*\* p<.001



<그림 5> 노인의 인지연령별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

## 5. 결론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노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의 침실과 거실은 입식과 좌식이 반반 정도씩 되었으며 바닥마감도 합성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반 정도 되었으며 나머지는 전통장판과 나무 바닥이었다. 많은 노인들이 침실에는 옷장과 이불장, 침대, 화장대를 두고 있었으며 거실에는 소파, 탁자, 장식장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을 위한 침실과 거실은 좌식과 입식생활 모두가 가능하도록 공간규모와 형태 및 바닥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침실에는 옷장과 이불장 및 침대와 화장대, 거실에는 소파와 탁자 및 장식장을 기본 가구로 하여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모두 한국전통, 현대, 서양고전 스타일의 순으로 한국전통 스타일과 현대 스타일이 많은 편이었으며 젊은 노인은 현대 스타일의 공간에서, 연령이 있는 노인은 한국전통 스타일의 공간에서 거주하는 성향이 약하지만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연령이 많은 노인들은 한국전통 스타일의 공간에서 자라왔으며 따라서 이에 친숙하고 편하여 나이가 들어서도 이를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는 반면 젊은 노인들은 현대 스타일의 공간을 접하면서 자라왔으므로 이를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침실과 거실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정할 때 노인의 연령대도 고려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노인의 인지연령은 노인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수준 및 건강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



력이 낮을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인지연령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인지연령이 낮아지는 성향을 보였다.

이러한 노인의 인지연령에 따라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여 노인의 인지연령 즉 노인의 감정, 외모, 행동, 관심연령이 40대인 노인은 서양고전 스타일의 침실에서, 50대인 노인은 현대 스타일의 침실에서, 80대인 노인은 한국전통 스타일의 침실에서 거주하는 성향을 보였다.

이는 노인은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이질적인 집단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노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연령에 따라 자신이 거주하는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도 달라지며 따라서 노인을 위한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계획할 때 노인의 인지연령에 따라 다르게 해줄 필요가 있다. 즉 자신이 느끼거나 보인다고 생각하는 연령이나 자신의 활동이나 관심이 어느 연령대인지를 고려하여 침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노인의 인지연령 중 외모연령과 관심연령에 따라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노인의 외모연령과 관심연령이 젊을수록 현대 스타일의 거실에서 거주하고 두 연령이 많을수록 한국전통 스타일의 침실에서 거주하는 성향을 보였다.

따라서 노인을 위한 거실공간을 계획할 때도 노인을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닌 이질적인 집단으로 보아야 한다. 즉 노인의 인지연령, 특히 자신이 생각하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연령과 자신의 관심사가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지를 고려하여 인테리어 스타일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노인의 인지연령에 따라 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은 유의미하게 달랐다. 이는 곧 노인의 인지연령은 실내디자인의 특성을 결정해주는 요인 중의 하나임을 말해주는 것이며 따라서 노인 관련 연구를 진행할 때 노인의 실제 연령 뿐 아니라 인지연령도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인지연령이 소비자 행동연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내공간의 인테리어 스타일에도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으며 연구결과 노인의 인지연령이 침실과 거실의 인테리어 스타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차후에는 실내공간의 범위와 특성을 넓히거나 기존의 실내디자인 특성 뿐 아니라 요구나 선호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실내공간의 건축적 요소의 스타일도 함께 조사하여 분석하는 연구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경숙·이연숙, 현대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3권 4호, 2004
2. 김소희·한영호, 실내디자인 스타일 유형화에 따른 주거 코디네이트 연출방법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권 3호, 2008
3. 김현정·최기탁, 인지연령에 따른 고령관광객의 관광지 선호속성과 관광행동, 관광경영연구, 14권 1호, 2010
4. 박광희, 인지연령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4권 1호, 2012
5. 백진영·최상현, 국내 타운하우스 실내에 표현된 인테리어 디자인 스타일 및 Coordination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1권 1호, 2009
6. 서민우·정유나, 실내디자인 스타일에 대한 노인들의 선호이미지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권 6호, 2012
7. 이금룡,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가?: 인지연령과 차이연령 분석에 근거한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정체성 연구, 한국노년학, 28권 2호, 2008
8. 이현주·박수빈, 주거공간 실내디자인스타일 구성요소의 디자인 인지침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4권 3호, 2012
9. 조성희·홍혜은, 주거 실내디자인에서 실내디자인 스타일의 인식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12권 1호, 2010
10. 홍경희·이윤정, 60대-70대 여성 소비자의 인지된 연령에 따른 의복선택기준 및 패션 정보원 활용, 한국의류학회지, 34권 2호, 2010

[논문접수 : 2015. 03. 31]

[1차 심사 : 2015. 04. 21]

[게재확정 : 2015. 04. 28]